

# 낙농선진국의 희망을 품은 선진지 연수

이 성 희 경기 여주 진희목장

“우리 예쁜 소순이들아, 고마워! 언니 유럽 잘 다녀올게!”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우리 집 젓소들에게 인사를 했다. 내가 드디어 유럽에 가 보는구나! 지난 일년간 집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를 보상 받는 기분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했다.

사실 지난 8월 2013 여성낙농인 목장경영 전문화 교육을 받으면서 유럽 연수를 기대했었다. 강의를 통해서 배운 이론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낙농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특히 네덜란드)에서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었다. 더 나아가 유럽의 유제품 시장에 대해서도 궁금했다.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목장형 유가공과 체험 농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현재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목장도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가는 유럽의 낙농가에서는 어떠한 경쟁력으로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또한 유럽의 낙농인들은 과연 젓소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했다.

어렸을 때부터 네덜란드는 풍차의 나라이자 낙농 선진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특히 네덜란드 국왕에게 편지를 써서 유학 길에 올랐다는 유태영 박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네덜란드는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국내 외적으로 힘을 쓴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방문한 PTC+(Practical Training Centre Plus) 역시 농장 경영을 교육하는 기관이었다. 5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국제적인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기관 및 기업과도 협약을 맺고 있었다. 방문한 곳은 PTC+ 중에서도 낙농 교육 전문 시설로 Learning by doing 즉, 견습생이 있는 곳이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수준에서부터 전문대학 수준까지 교육 과정이 있으며, 이수한 교육증명서는



국제적으로 인증이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가진 학교가 있지만 대부분의 농업 전문 고등학교 및 대학이 그렇지 않은 현실이 안타깝기만 했다.

PTC+의 강의를 듣던 중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퇴비 처리에 대한 부분이었다. 아마도 전국의 목장을 경영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퇴비를 처리할 것이다. 네덜란드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1/5 밖에 안 되지만 산이 없어서 가용면적은 우리나라보다 넓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들은 초지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퇴비에 대한 걱정은 없었다. 모두 자연으로 자동적으로 환원이 되었다. 30년 전 제정된 농업법은 탁상공론이 아닌 실제로 농업인들의 입장을 고려한 법이라고 한다. 현재 축산분뇨법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다른 모습이어서 정말로 부러웠다.

우리가 방문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근교에 위치한 목장은 낙농 후계자가 경영하고 있는 대규모의 목장이었다. 착유소 관리는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TMR 배합부터 착유까지 말이다. 시설적인 부분은 우리나라의 대규모 목장과 비슷했다. 하지만 그 옆에 펼쳐진 초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네덜란드 뿐만 아니라 연수 내내 넓게 펼쳐진 초원을 볼 때마다 감탄이 절로 났으며 정말로 부러웠다.

스위스 에멘탈 지역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 3대 치즈인 에멘탈 치즈가 유명한 곳이다. 에멘탈로 가는 길은 마치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뛰어 놀 것 같은 풍경이었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같이 산악지형이 많은 곳이었지만 가파른 경사에서도 초지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젖소들이 마음껏 풀을 뜯고 있었다. 집에 있는 우리 젖소들을 생각하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초원에서 풀을 뜯고 놀며 뛰어 다녀야 할 녀석들인데…… 에멘탈 치즈 마을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꾸렸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에멘탈 치즈 마을의 집들이 동화 속에 나오는 집들 같았다.



에멘탈 치즈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들이 총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건물은 1702년부터 치즈를 만드는데 이용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지금까지도 치즈를 만들고 저장도 하고 있었다. 다른 건물에서도 치즈를 만들고 있었는데 기계 설비가 잘 갖춰져 있어서 하루에 수백 kg의 에멘탈 치즈를 만들고 있었다. 에멘탈 치즈 마을 내 매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유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소비자들이 방문하였다. 스위스의 에멘탈 치즈 마을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전라북도 임실 치즈 마을이 떠올랐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치즈를 만들던 곳의 모습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치즈 마을을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독일의 유기농 농장과 축산 분뇨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농장으로 통하여 우리나라의 미래의 목장의 모습을 꿈꾸었다. 목장에서 나오는 축산 분뇨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그저 부럽기만 했다.

우리나라의 환경적인 모습과 기후조건이 다를 뿐이지, 유럽의 목장의 시설이나 짓소의 성적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우리나라가 월등한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본받을 점은 분명히 있었다. 목장들이 함께 뭉치고, 자신들의 전통은 지키고, 미래의 자손들을 생각하는 모습은 분명히 달랐다. 사실 목장경영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 알지 못하여 많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자신의 목장뿐만 아니라 함께 뭉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목장도 함께 뭉쳐서 우리가 처한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들의 생각이 먼저 바뀌고 실천한다면 우리나라 역시 낙농선진국이라는 명성을 떨치는 날이 올 것이다! ☺